

# ‘공수 완성형 거듭난다’ 김도영 진화는 현재 진행형

### 26홈런·72타점 맹타에 실책 3개...공격·수비 ‘도약’ 철저한 몸 관리로 꾸준함 장착...“전 경기 출전 목표”

KIA 타이거즈 ‘슈퍼스타’ 김도영이 또 한 번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시즌을 만들고 있다. 공격에서는 리그 정상급 생산력을 뽐내고, 수비에서는 리그 최고 수준의 3루수로 거듭났다.

김도영은 5일 경기 전 기준 83경기에서 306타수 91안타 26홈런 72타점 5도루 타율 0.297 OPS(출루율+장타율) 1.006을 기록 중이다. 홈런 공동 2위, 타점 3위, OPS 3위 등에 오르며 KIA 중심타선을 이끌고 있다.

특히 지난 2024시즌 정규시즌 MVP를 수상했던 페이스를 뛰어넘는 생산성이 눈에 띈다. 당시 김도영은 전반기 종료 후 81경기에서 23홈런 60타점을 기록했지만 올하는 이미 26홈런과 72타점을 쌓았다.

타율(0.341)은 그 때보다 낮지만 중심타자에게 가장 중요한 장타력과 해결 능력은 한층 발전했다.

김도영은 올 시즌 내내 타율 3할 회복을 목표로 꾸준히 타격감을 끌어올렸다. 초중

반 페이스는 좋지 않았지만, 어느덧 3할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번호 감독은 김도영의 상승세를 높게 평가했다. 그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타율이 조금 떨어져 있다고 보지만 충분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며 “김도영의 능력이라면 3할3푼 이상도 가능한 선수다. 시즌이 끝날 때가 되면 본인이 원하는 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최근 타격감에 대해서도 “좋아진 것이 확실히 눈에 보인다. 전반기를 잘 마무리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 후반기에도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격보다 더 눈에 띄는 변화는 수비다. 김도영은 지난 2024시즌 내추럴 사이클링 히트와 최연소 30홈런-30도루 등 굵직한 기록을 작성하며 리그를 대표하는 스타로 떠올랐다. 그러나 수비에서는 30개의 실책을 기록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올해는 완전히 달라졌다. 83경기 가운데 72경기에서 3루를 지키며 601.2이닝을

소화했고, 실책은 단 3개뿐이다. 3루수 가운데 노시환(한화·647.2이닝)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비 이닝을 책임지면서도 안정감을 유지해 유력한 수비상 후보로 거론된다.

김도영의 수비 향상은 우연이 아니다. 지난해 햄스트링 부상으로 시즌을 조기에 마감한 뒤에도 수비 훈련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어려운 타구를 자연스럽게 처리할 만큼 기량을 끌어올렸다.

철저한 자기 관리 또한 꾸준한 활약의 원동력이다.

김도영은 지난달 30일 SSG전을 마친 뒤 “지난해 햄스트링 부상을 세 번이나 당했던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느꼈다”며 “그만큼 몸 관리를 더 철저히 하려고 항상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구단의 체계적인 관리에 더해 스스로 회복 프로그램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경기 후 회복 훈련은 물론 집에서 스트레칭과 지압판을 활용한 혈액순환 관리까지 빼놓지 않는다. 충분한 수면도 원칙이다. 그는 “하루에 8시간 정도 자려고 한다. 수면 데이터를 보면 항상 좋게 나온다”고 언급했다.

휴경기 때는 낮부터 야구장에 나와 식사

와 개인 훈련, 몸 관리까지 마친 뒤 경기에 나선다. 화려한 성적 뒤에는 누구보다 철저한 준비 과정이 숨어 있는 셈이다.

김도영이 이처럼 자기 관리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분명하다. 바로 ‘전 경기 출전’이라는 목표 때문이다.

2022년 프로 데뷔 이후 김도영은 아직 한 번도 정규시즌 전 경기를 소화한 적이 없다. MVP를 차지한 2024시즌에도 141경기에 출전했고, 지난해에는 잇따른 부상으로 30경기만 뛰었다.

올해도 9월 열리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표팀 차출로 정규시즌 전 경기 출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김도영은 올 시즌 경기를 모두 건강하게 소화하고 싶은 바람이다.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한층 성장한 김도영, 여기에 꾸준함까지 더해진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2026 어르신건강체육대회’ 체조 종목 참가자들과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체육회

## 광주 어르신들, 생활체육으로 건강·화합 다졌다

### 탁구·테니스·체조·당구 등 6개 종목 열전 마무리 “100세 시대 프로그램 확대”...최고령 특별 시상도

광주지역 어르신들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과 화합을 다진 ‘2026 어르신건강체육대회’가 3주간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광주시체육회는 최근 열린 ‘2026 어르신건강체육대회’가 지난 4일 당구 종목을 끝으로 성황리에 폐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고품위 시대를 맞아 어르

신들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선수들의 체력 부담을 줄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약 3주 동안 주말마다 종목별 경기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대회는 지난달 14일 탁구와 테니스,

축구 종목으로 막을 올렸다. 참가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이어 지난달 27일 열린 레크리에이션과 체조 종목에서는 승패보다 화합과 건강에 의미를 두고 참가자들이 함께 웃고 즐기는 축제의 장이 이어졌다.

대회의 마지막은 지난 4일 열린 당구 종목이 장식했다. 참가자들은 높은 집중력과 정교한 기술을 앞세워 수준 높은 경기를 선보이며 대회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시체육회는 이번 대회에서 경쟁보다 참여와 화합의 가치를 강조했다.

종목별 최고령 참가자에게는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담은 ‘꽃보다 청춘상’과 특별 기념품을 전달하며 모두가 함께 축하받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약 3주 동안 이어진 이번 대회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함께 나누는 의미 있는 축제였다”며 “참가자들의 열정과 활력이 지역사회에 큰 감동을 준 만큼 앞으로 100세 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 광주FC, 유럽서 검증된 공격수 바 루아 영입

### 체코·폴란드 등 유럽 리그 경험...공격력 강화 주목

프로축구 광주FC가 유럽 무대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측면 공격수를 영입했다. 5일 광주FC에 따르면 최근 코트디부아르 출신 측면 공격수 아드리엘 바 루아(29·사진)를 영입해 공격진 경쟁력을 강화했다.



원발잡이인 바 루아는 빠른 스피드와 뛰어난 드리블 능력을 갖춘 측면 공격수다. 좌우 양측은 물론 중앙 공격 지역까지 소화할 수 있는 멀티 자원으로, 과감한 1대1 돌파와 날카로운 패스를 통한 기회 창출 능력이 강점으로 평가받는다.

1996년생인 바 루아는 코트디부아르 명문 ASEC 미모사우스 팀에서 성장한 뒤 프랑스 LOSC 릴 B팀을 통해 유럽 무대에 진출했다. 이후 덴마크와 체코, 폴란드, 프랑스 등을 거치며 다양한 리그에서 경험을 쌓았고, 최근에는 아제르바이잔 1부리그 FK 가발라에서 활약했다.

특히 레흐 명문 빅토리아 플젠과 폴란드 강호 레흐 포즈난에서 뛰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직전 시즌에는 리그 30경기에 출전해 4골 8도움을 기록하며 꾸준한 출전과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을 보여줬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 광주여대, 전국대학배구 무실세트 2연패 위업

### 결승서 우석대 3-0 완파...대회 전 경기 무실세트 압도

광주여자대학교 배구가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는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전국대학배구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광주여대는 최근 경남 고성군에서 열린 ‘2026 대한항공배 전국대학배구 고성대회’에서 전 경기 무실세트 우승을 차지하며 대회 2연패를 차지했다.



광주여대는 조별리그에서 호남대와 등의 대를 나란히 세트스코어 3-0으로 제압하며 A조 1위로 준결승에 진출했다. 이어 준결승에서도 완벽한 경기력을 선보인 뒤 지난 3일 열린 결승에서 우석대를 세트스코어 3-0(25-17, 25-21, 25-16)으로 완파하며 정상에 올랐다.

이번 대회에서 광주여대는 단 한 경기,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였다. 특히 주축 선수들의 졸업으로 전력을 새롭게 꾸려야 하는 상황에

서도 어린 선수들이 빠르게 성장하며 공백을 메웠다. 선수단 모두가 하나로 뭉쳐 무실세트 전승과 대회 2연패라는 값진 성과를 만들어냈다.

개인상도 광주여대의 차지였다. 최성우 감독이 최우수지도자상을 받았고, 김민채는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이소민은 서브상, 김민주는 블로킹상, 장지혜는 리베로상을 각각 수상하며 팀의 압도적인 전력을 입증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 광주특별시청 펜싱, 전국대회 에페 ‘정상’

### 女 단체전 2년 만 우승...사브르 개인·단체전 동메달 획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펜싱팀이 전국 종합선수권대회에서 에페 단체전 우승과 사브르 개인·단체전 동메달을 따내며 전남 펜싱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펜싱팀은 지난 달 30일 개막해 오는 9일까지 총복 제천시 세명대학교 체육관과 제천시 어울림체육센터에서 열리는 ‘제64회 전국 남녀 종합별선선수권대회’에서 여자 에페 단체전 우승과 여자 사브르 개인전·단체전 동메

달을 획득했다.

가장 눈에 띈 성과는 여자 에페 단체전이었다. 김향은, 박소형, 김태희, 한다현으로 구성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은 결승에서 계룡시청을 45-41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8강에서는 경기도청을 45-32로 제압했고, 준결승에서는 경상남도체육회를 45-42로 물리치는 등 안정적인 경기력을 앞세워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우승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은 제62회 대회 이후 2년 만에 에페 단체전 정상 탈환에 성공했다. 지난 6월 부임한 김수민 감독 체제에서 거둔 첫 전국대회 우승이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했다.

사브르에서도 값진 성과를 이어갔다. 박다운, 손정민, 전수인, 김은선으로 구성된 여자 사브르 대표팀은 단체전 8강에서 양구군청을 45-33으로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으나 안산시청에 43-45로 아쉽게 패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개인전에서는 손정민이 준결승에서 최수빈(안산시청)에게 석패했지만 동메달을 차지하며 개인전과 단체전 모두 시상대에 오르는 활약을 펼쳤다.

이번 대회는 에페 단체전 정상 탈환과

함께 세 지도체제 출범 이후 첫 전국대회 우승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전남 펜싱의 새로운 도약을 알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영준 전남펜싱협회장은 “이번 우승의 기세를 이어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최고의 경기력을 선보일 수 있도록 지도와 훈련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에페 단체전 우승과 사브르 개인·단체전 입상은 선수들과 지도자의 땀과 노력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우수 선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전남 펜싱이 전국을 넘어 국제무대에서도 경쟁력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